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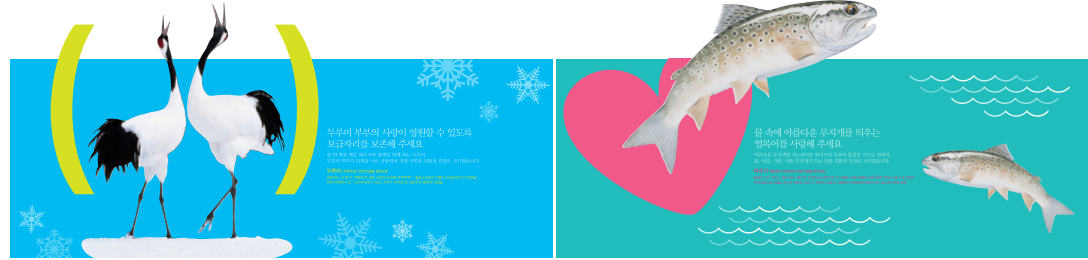
아트펜스디자인 시안A

ArtfenceDesign Plan A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친환경 건설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환경오염과 파괴로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특별관리가 필요해진 동·식물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친환경 건설’이라는 컨셉으로 시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섯 천연기념물의 실사 이미지, 보호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하는 직·은유적 아이콘들(괄호, 심표, 우산, 하트, 별), 채도 높은 컬러를 이용하여 임팩트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정보 제공과 관심 유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별
Unit



전체
Total



적용
Application





두루미 부부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보존해 주세요

한 번 짝을 맺은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 두루미.
두루미 부부가 일생을 서로 사랑하며 지낼 자연을 친환경 건설로 지키겠습니다.

두루미 (두루미과) 천연기념물 제202호

연호하는 새 중 두 번째로 큰 새로, 국제적 희귀종 '두루미루~'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짐.
한해 이빨에서 단 1,500마리만이 남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멸종위기종.



물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우는 열목어를 사랑해 주세요

아름다운 무지개빛 지느러미를 휘저으며 유유히 물길을 가르는 열목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지개가 뜨는 강을 친환경 건설로 지켜겠습니다.

따오기 [물새목 저어새과] 천연기념물 제100호

몸길이 30~70cm,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상완골의 4~5월의 노란 깃털은 흰색 줄에 흰과 가을 지느러미는 무지개빛으로 번갈, 날개를 펴면 흰과 각 부위와 실록과 사데마·두발·황마색의가의 날선날수·가래·물조





땅 위에 뜨는 또 하나의 반달, 특별하게 대해 주세요

가슴에 선명한 반달을 담은 채 숲 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반달가슴곰.
반달가슴곰이 배부르게 먹고, 마음 편히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숲을 친환경 건설로 지킵겠습니다.

반달가슴곰 [종과] 천연기념물 제329호

털은 검은색, 가슴에 V자 모양의 흰 반달무늬에서 이름이 유래. 겨울 시작 전후 바위굴이나 나무구멍 속에서 동면
과일, 도토리 등 식물성 먹이 선호. 후각과 청각 매우 발달



아트펜스디자인 시안B

ArtfenceDesign Plan B

자연으로의 초대

펜스는 공사현장을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다양한 감각에 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하고자 하였습니다. 펜스 뒷편의 세상으로 통하는 아치형태의 문이 실제로 있는 듯 트릭 아트로 표현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 문 뒤로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친환경 건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Unit



전체
Total



적용
Application



B



들리나요?
자연이 일어나는 소리가

친환경 건설로 매일 아침,
자연과 함께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려지나요?
자연이 뛰노는 모습에!

친환경 건설로 자연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하나요?
자연과 더불어 살던 그 순간을!

친환경 건설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트펜스디자인 시안 C-1

ArtfenceDesign Plan C-1

사람이 짓고 자연이 삽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집을 짓고 사는 동물과 곤충들, 우리 인간들의 건설 역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공간을 짓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는 중'이라는 헤드카피를 통해 공사 중인 현장을 가리는 펜스의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녹색 계열의 바탕색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었고, 각 동물과 곤충의 집은 심플하게, 그 집을 짓고 있는 동물과 곤충은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여 이미지 표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개별
Unit



전체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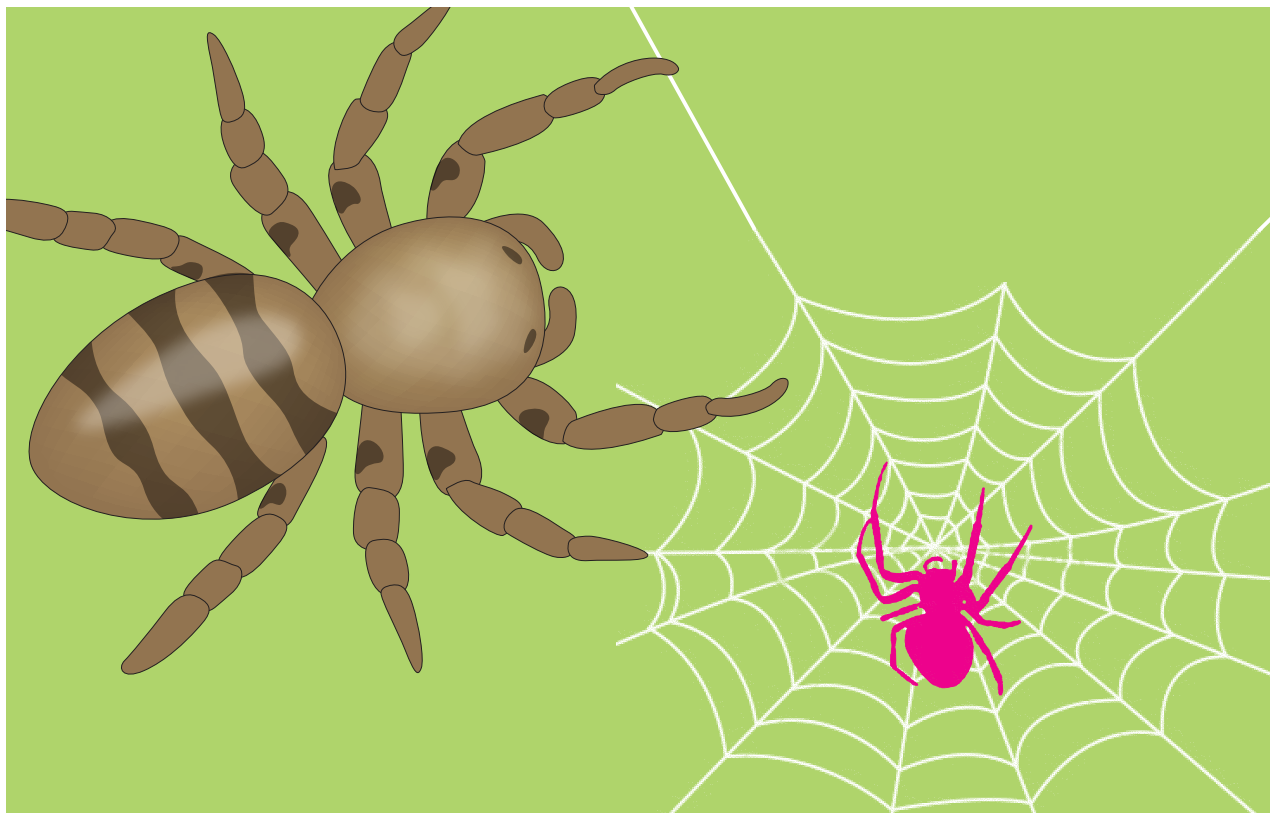
적용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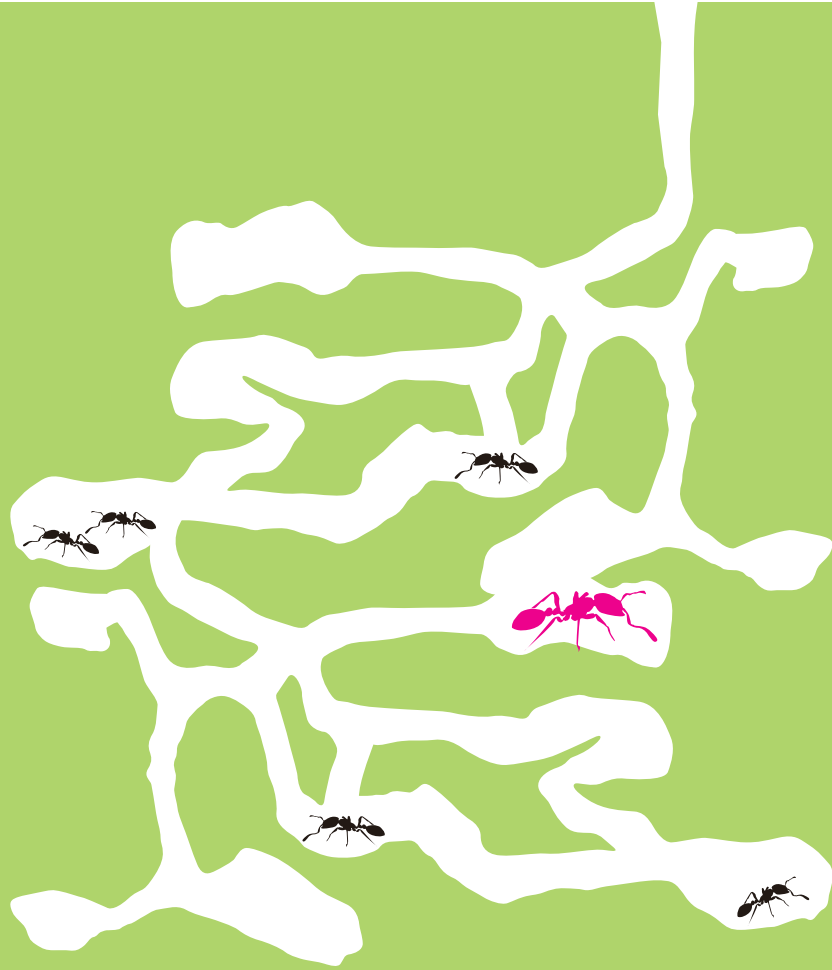
“비버의 보금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위해
비버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
친환경 건설로 만들어 갑니다.



“거미의 그물 놀이터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위해
거미의 놀이터를 부수지는 않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
친환경 건설로 만들어 갑니다.



“개미들이 살 마을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위해
개미들의 마을까지 허물지는 않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
친환경 건설로 만들어 갑니다.





“여왕벌을 모실 궁전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위해
벌들의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
친환경 건설로 만들어 갑니다.

아트펜스디자인 시안 C-2

ArtfenceDesign Plan C-2

사람이 짓고 자연이 삽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집을 짓고 사는 동물과 곤충들, 우리 인간들의 건설 역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공간을 짓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는 중'이라는 헤드카피를 통해 공사 중인 현장을 가리는 펜스의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녹색 계열의 바탕색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었고, 각 동물과 곤충의 집은 심플하게, 그 집을 짓고 있는 동물과 곤충은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여 이미지 표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개별
Unit



전체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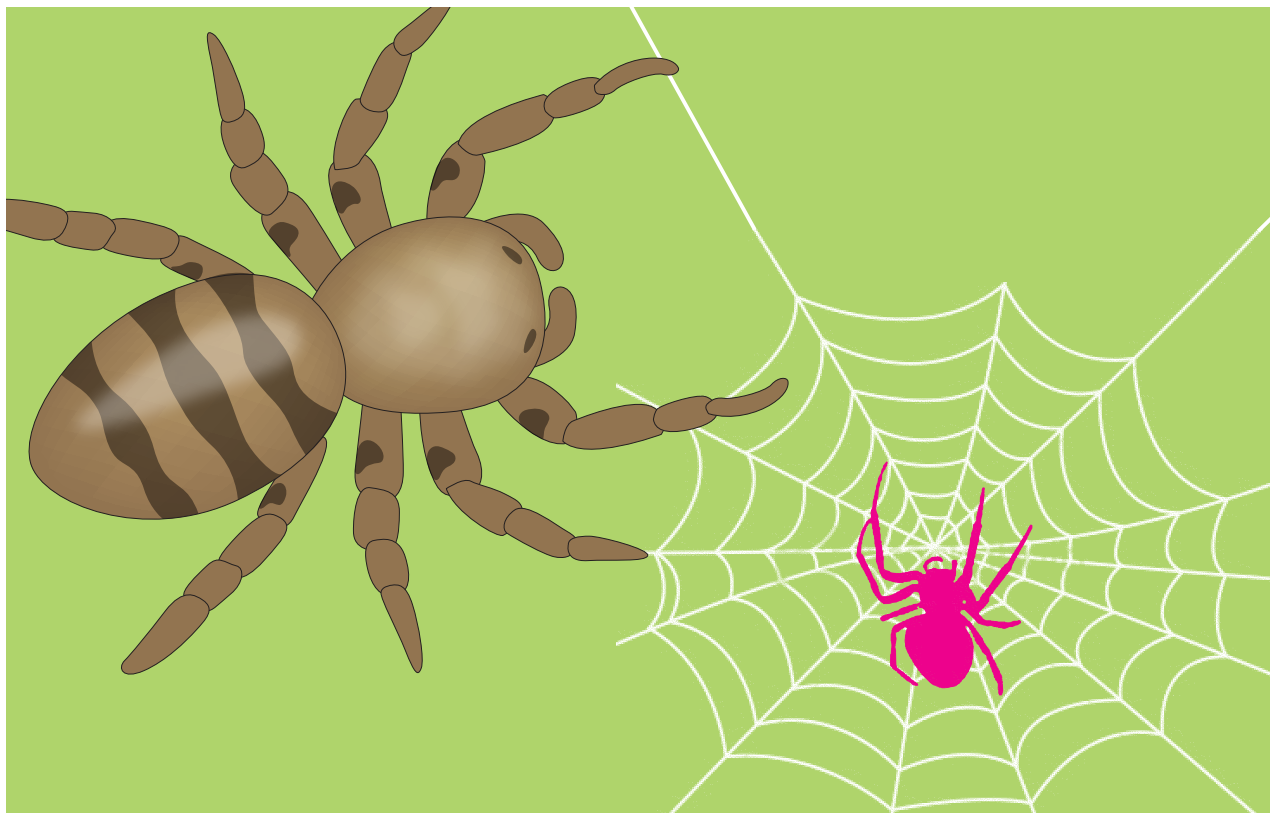
적용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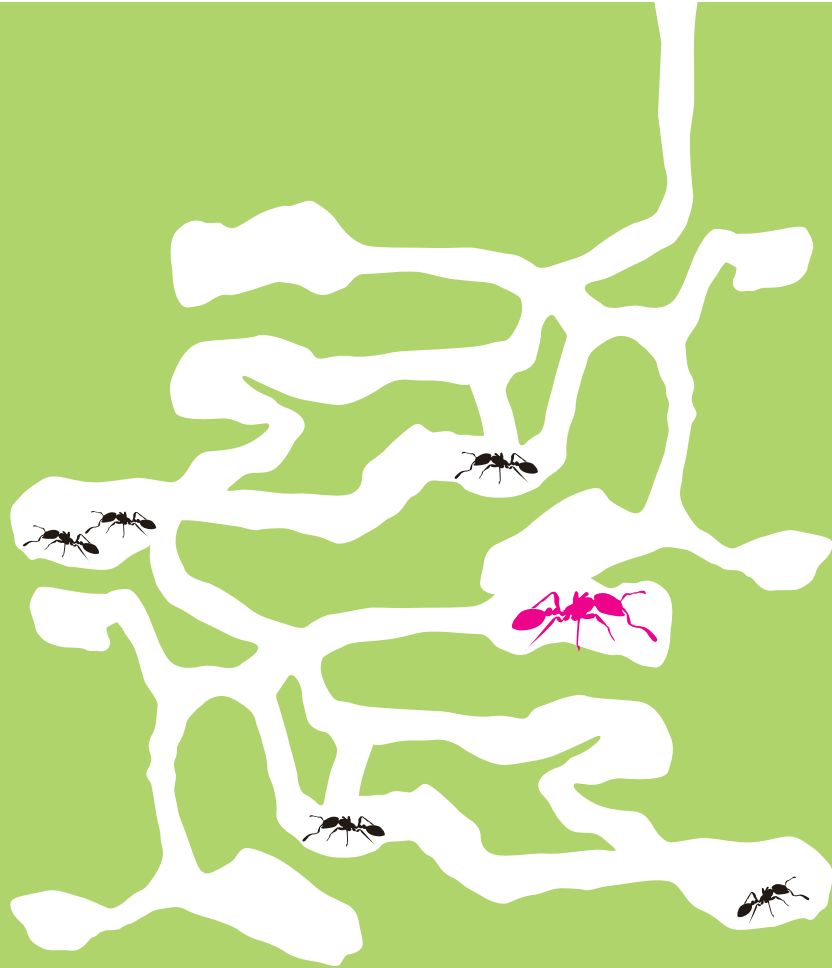
“보금자리 만드는 중”

비버가 조심스럽게 만드는 튼튼한 보금자리처럼...
사람이 만들고 자연이 삽니다.



“집 짓는 중”

거미가 한 줄 한 줄 아름답게 짓는 거미집처럼...
사람이 짓고 자연이 삽니다.



“터전 다지는 중”

개미들이 부지런히 다져놓은 탄탄한 터전처럼...
사람이 다지고 자연이 삽니다.





“집 키우는 중”

벌이 조금씩 키워나가는 완벽한 육각 벌집처럼...
사람이 키우고 자연이 삽니다.